



우리가 만나는 누구든 사랑으로 환영해요.



포콜라레
천주교마리아사업회



바오로 사도는 포로로 잡혀 로마로 끌려가 심판을 받아야 했어요. 그런데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큰 폭풍을 만났어요.



일주일이 넘게 바다를 떠돌아다니다 배가 부서져 몰타 섬에 도착했어요.



섬 주민들은 큰 사랑으로 그들을 환영하고, 그들이 따뜻하도록 불을 지펴주었어요. 바오로 사도는 석 달 동안 그들과 함께 지내게 되어요.



요한은 올해 첫 영성체를 할 수 있어서 매우 기뻐요. 그런데 요한은 첫 영성체 파티를 위한 선물을 돈으로 달라고 했어요.



왜 돈이 필요하니?라고 사람들이 물으면, 요한은 “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라크 아이들을 위해 기부하고 싶어요”라고 답해요.



저는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한 형제로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. 우리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거나 다른 종교를 믿더라도 예수님은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.